

<p>2022학년도 1학기 춘계 고적답사 및 학술제</p>	<h2>현장 답사 보고서</h2>	<p>(7) 조 18 이종준 19 문성혁 20 김영우 21 윤건희 21 정예원 21 조예진 22 권혁 22 김민서 22 김재익 22 조민정</p>
<p>① 답사 지역 (도시)</p>	<p>대구</p>	
<p>② 답사 주제와 의도 (선정 이유)</p>	<p>‘대구의 도시 확장’ - 근·현대의 역사적 측면과 인문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구’의 도시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답사를 계획하였다.</p>	
<p>③ 답사 테마 또는 컨셉</p>	<p>▲ 기억과 공간 : 근·현대 속 대구의 활약을 기억하며 본 변화된 대구의 현재</p>	
<p>④ 답사 코스 및 일정</p>	<p>▲ 08:40 대구대 정문에서 집결 및 출발 → 안심역(5번 출구)까지 버스로 이동 → 안심역에서 중앙로역(4번 출구)까지 지하철로 이동 ▲ 10:00 대구근대역사관(대구 통학생 집결) ▲ 11:00 희움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 12:00 점심 - ‘테이스팅스푼’ ▲ 13:00 국채보상운동기념관 ▲ 14:00 카페 - ‘랑데자뷰’ ▲ 15:30 경상감영공원 ▲ 16:30 해산</p> 	
<p>⑤ 답사 결과 보고 (주요 보고서 발표 내용)</p>	<p>1. 대구근대역사관 - 관람료는 무료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운영하고 있다.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 지점으로 건립되어 광복 후 1954년 한국산업은행 대구 지점으로 사용되다 2008년 대구도시공사로부터 기증받아 2011년 대구근대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본 건물은 2003년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근대 문화유산으로 르네상스 양식의 원형이 잘 드러난다.</p>	

- 경성감영 설치 후 경상도의 행정, 사법, 군사의 중심지였던 대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모형, 영상들이 전시되어있다. 역사 연표에 따라 시대별로 대구의 모습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제의 내륙 침탈 과정과 일제 강점기 시절 대구의 모습과 대구에서의 항일 운동, 여성 운동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일제의 금융 지배를 위한 조선식산은행으로 당시 사용되었던 은행 자료들이 남아있고, 그에 대항한 장진홍의 '조선식산은행 대구 지점 폭탄 사건'에 대해서도 전시되어있다. 그 외에도 국채보상운동, 2·28 학생 운동에 대해서도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로 시내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했던 부영버스 영상 체험실이 있어 대구 근대 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근대 미술, 음악, 문학에 대해서도 전시되어있는데 시각 자료를 보면서 '대구아리랑'을 감상 할 수 있다.



2.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 2000원의 관람료가 있고,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역사관은 김순악 할머니의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말라'는 유언과 5천만원 기탁으로부터 시작되어 시민들의 기부금,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건립된 역사관이다.
- 역사의 벽과 증언의 벽에서는 '위안부'와 관련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처음 '위안부'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의 기사부터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노력에 관한 기사들을 프로젝션을 이용한 기법을 활용해 전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상영하는 영상관이 있다.
-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피해자와 지원 단체, 후원자, 그 활동 등 관련자의 사진이 전시되어있는 얼굴의 계단이 있다. 2층에는 해외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영상자료와 VR이 있다.





3. 국채보상운동기념관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을 걷다 보면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의 과정과 서상돈에 대한 정보들을 소개, 전시하고 있다. 또, 국채보상운동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근대적 여성 운동, 근대 시민 민족주의 운동, 최초의 금연 운동, 최초의 경제 주권 수호 운동 등의 의의를 시각 자료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안중근 의연, 국채 보상 연합 회의 소의 공합, 어린이 의연 등을 모형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영상실에서는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세계 유일의 민간 중심의 외채 상환의 기록물이자 탄압 속에서도 이를 보도한 언론보도의 기록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민간이 쓴 기록과 언론물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록물들이 한 쌍이 되어 역사적 사실을 보증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책임 의식과 평화 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는 이러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특징을 타 국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비교하여 전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경성감영공원

- 경성감영지는 조선 시대 관찰사가 기거하던 곳이다. 경성감영지는 중심건물인 선화당과 장청각이 원위치에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 후기 관아의 격식과 구성을 알 수 있는 유산이다. 일제 강점기에 경성 감영지 내외로 도로가 만들어지며 그 영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현재는 공원으로 조

성되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⑥ 답사의 의의와 효과

답사를 기획하며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근현대사를 많이 알게 되었고 장소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역사를 공부하는 경험이 새로웠다. 또한 직접 답사지를 방문하니 평소에는 가볍게 지나쳤을지도 모를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다 의미 있음을 느꼈다. 직접 답사를 다녀오고 공부하니 역사가 우리와 동떨어진 과거가 아니라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근현대사에서 대구가 차지해왔던 비중과 그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도시에는 역사가 깃들여있으며 모든 역사의 순간이 모여 지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